

쾌락을 추구할수록 무지해진다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8)

동물은 개념적 자아가 없으므로, 감각 결합 해소에 따른 쾌락강도가 줄거나 사라진다고 해도 개념적 자아의 훼손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쾌락경험을 개념적 자아감 수립의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쾌락강도의 감소와 소멸을 '인칭 개념자아의 불안과 훼손'으로 경험한다.

생물적 본능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강도를 더 높이려는 욕망, 줄어드는 쾌락강도를 재강화하려는 욕망, 사라지는 쾌락을 복원시켜 지속시키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쾌락의 강도와 지속 여부를 자아감의 강도와 안정의 문제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쾌락강도가 떨어지면 자아감이 떨어지고, 쾌락감이 지속되지 않으면 자아감이 위협받으며, 쾌락감이 소멸하면 자아감의 훼손을 경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감각의 대상인 맛·소리·모습·감촉·냄새·지식 등의 내용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 쾌락강도를 더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쾌락강도를 유지하거나, 사라뜨리는 쾌락을 복구하려 한다. 자아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인간에게 자아감의 안정적 확보문제는 삶을 관통하는 과제이기에, 감각쾌락의 보존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아감에 대한 기대는 곧 '불변 자아감'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인간에게는 '불변 자아감을 확보하기 위해 감각쾌락의 보존에 매달리는 욕망'이 발생하여 뿌리내린다. 이것이 탐욕이다. 이 탐욕을 '쾌락탐욕'이라 불러 본다면, 쾌락탐욕은 감각쾌락의 속성상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감각결핍을 채워서 얻게 되는 감각쾌락의 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쾌락감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각쾌락의 이 자연적 속성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크게 두 유형이다. 한 유형은, 쾌락강도의 복구나 쾌락의 지속을 위한 노력이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쾌락강도의 감소와 쾌락감의 자연적 소멸을 적절히 수용하는 경우로서, 이런 유형의 쾌락감 지속욕망은 자신과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약한 쾌락탐욕'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변자아라는 환각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는 '풀러나

할 욕망'이다.

또 하나의 유형은, 쾌락강도의 감소와 쾌락감의 소멸을 수용하지 못하여, 어떻게 해서든 쾌락강도를 복구하고 쾌락감을 지속시키려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쾌락감 지속욕망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강한 쾌락탐욕'이다. 강한 쾌락탐욕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쾌락강도를 복구하거나 더 높이기 위해, 그리고 사라져가는 쾌락감을 붙들어 지속시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허영이나 변태적 욕구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감각쾌락을 맴돌며 달리는데, 그 결과는 삶과 사회적 관계의 심각한 오염과 훼손으로 나타난다.

강한 쾌락탐욕은 '이기적 자기중심성' '무한 증폭' '노예적 의존성' '무지'고

인간은 쾌락 강도의 감소·소멸을 '자아의 불안과 훼손'으로 착각해

착'의 속성을 지닌다. 어떻게 해서든 쾌락강도를 확보하고 쾌락감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태도를 취한다. 쾌락의 쇠잔을 수용하지 않아,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쾌락'을 보존하려 든다(이기적 자기중심성).

또한 이러한 쾌락보존 행위는 계속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익숙해진 쾌락은 강도가 떨어지므로, '더 새로운 것' '더 강렬한 것'을 향한다(무한 증폭). 이렇듯 관심이 감각쾌락의 강화와 보존에 몰두되다보니, 감각쾌락과 자아감이 밀착되고 자아의 행위가 감각쾌락에 종속되어 노예적 의존도가 심화된다(노예적 의존성). 그리고 쾌락경험에서 불변의 자아감을 확보하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파해버리는 무지가 고착된다(무지의 고착).

불변자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두 번째 방식은 '소유를 통한 자아확인'이고, 이 과정에서 탐욕이 발생한다. 니카야/아함의 무아설법에서 항상 등장하는 '나' '나의 것'의 동시배열이 이에 해당한다.

자신의 정신과 신체 그 어디에서도 불



인간은 탐욕과 소유욕을 쾌락으로 착각한다. 그리고 쾌락의 강도가 줄고 소멸되는 것이 자기 자아의 훼손이라고 오인하게 된다.

변의 자아를 확인할 수 없는 인간은, 그 환각자아의 빈자리를 소유물으로써 채우려 한다. '남의 것'이 아닌 '나만의 것'이라 생각하는 상품/지식/재산/사람 등의 확보를 통해 자아감을 견실하게 방어하려고 한다. 이 자아확인 방식은 '내가 소유한 것'과 '자아'를 동일시하려는 것이기에, 소유물이 많을수록 견실한 자아감을 성취할 것이라 기대한다.

자아감은 능동적 경험이다.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능동 자리'에서의 경험이 자아감의 핵심이다. '능동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아감은, 주인자리를 뺏긴 사람의 박탈감과도 같은 소외된 경험이다. 그것은 '주인의 자유에 의거한 능동적 존재'를 상실한 '소외된 자아감'이고 '사이버 자아감'이다. 마치 재산권을 상실한 사람이 여전히 집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과 같은, 공허하고 무력한 자아감이다. '소유하는 능동주체'가 '소유되는 피동객체'에서 자아감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주인자리를 놓친 자아감은 불안과 공허, 예속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소유물에 의해 능동자아감을 확보하려는 일은 근본적으로 헛발질일 뿐 아니라, 소유물 자체도 '변치 않는 나의 것'일 수가 없

다. 모든 '나의 것'은 끊임없이 '나의 것 아닌 것'으로 미끄러져 간다. 변치 않는 자아에 대한 기대를 '변치 않는 나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나의 것'이라고 간주하는 소유물 자체가 '불변의 것'일 수 없기에, 환각의 공허를 또 다른 환각으로 채우는 실패로 끝난다.

소유를 통해 불변자아를 확인하려는 욕망이 탐욕이다. 이 탐욕을 '소유탐욕'이라 부른다면, 소유탐욕에도 크게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소유를 통해 자아감을 경험하려고 하면서도 소유자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자제하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소유욕은 '약한 소유탐욕'으로서 소위 '건전한 세속적 욕망'이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소유를 통해 견실하고 안정된 자아감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계속 좌절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아에 대한 환상에 집착하여 집요하게 소유물 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소유욕은 '강한 소유탐욕'으로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악을 초래한다.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찰 달력 유감

사찰마다 달력이 있다. 양력과 음력이 복잡하게 박혀있어, 노인들이 좋아하는 세월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낱짜 밑에는 육십갑자가 십이지간의 동물그림과 함께 적혀 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달력의 마지막장 12월 달력의 뒷장에는 거시기한 내용의 문자가 촘촘히 박혀 있음을 보게 된다. 1살에서 120세까지 십이지간의 동물그림으로 띠 문화를 홍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거기다가 삼재풀이라 하여 들삼재, 놀삼재, 낱삼재가 해당된다는 동물 이름과 함께 부끄럽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삼재를 살펴보면, 물의 재앙, 불의 재앙, 바람의 재앙을 의미한다. 들삼재는 삼재가 드는 3년을, 놀삼재는 삼재가 놀러있는 3년을, 그리고 낱삼재는 삼재가 나가는 3년을 뜻한다.

달력의 뒷장에는 또한 상충살, 원진살도 상대되는 띠와 함께 적혀있다. 상충살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 않아 서로를 해치게 하거나 만나도 헤어져야 하는 모진 인연의 의

삼재풀이는 무당 박수의 몫일뿐 깨달음의 종교, 마음의 종교, 오늘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사라져야 할 부끄러운 몸짓들이다. 사찰에서 울리는 목탁소리에도 아름다운 힐링 문화가 담겨 있지만, 법당에서는 진리의 설법 문화가 그 돌레를 넓혀가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과 틈을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상충살, 원진살 따위도 마땅히 사라져야 할 어두운 그림자들이다. 마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삼재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사찰과 스님들까지 결집해 떠올린다면 불교의 앞날은 어둠 쪽으로 기울게 분명하다.

하여, 사찰이 사머니즘(shamanism)과 토테미즘(totemism)의 생활공간인양 오해하고 승려와 무당이 한통속으로 지레 짐작한다면 이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 것인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구원을 약속해 주는 메시아(messiah)도 키우지 않는다. 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神本主義)적 타력신앙(他力信仰)도 멀리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상대되는 띠와 함께 적혀있다. 상충살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 않아 서로를 해치게 하거나 만나도 헤어져야 하는 모진 인연의 의

달력 삼재풀이, 불교 가르침 아나 법당에 진리의 설법 문화 채워져야

미한다. 원진살이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살이 끼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살'은 '죽일살(殺)'을 의미한다.

자, 이쯤에서 사찰달력의 뒷장에 대한 어설문 설명은 그만하고 유감표명을 해야겠다. 십이지간의 띠 문화는 물론 상충살, 원진살 따위는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한국어 사전에도 삼재풀이를 찾아보면, 삼재가 드는 해에 재액을 미리 막기 위하여 무당이 드리는 치성으로 설명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중국문화이자 중국의 민속신앙이 한국으로 흘러와 사찰 달력에도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버젓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조시대의 배불승유정책에 의해 사찰은 여러 가지 의미로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민속신앙과 교류하게 되고 민중과의 연결의 끈을 찾아 타협해 왔을 터이다. 칠성신앙과 산신, 용왕 행화가 사찰 건물에 들어서게 되고 삼재풀이까지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서 목탁을 울리는 종교의식으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도 지식의 평준화도 상식이 통할 수 있는 논리의 전제를 필요로 한다. 무당도 불상을 모시고 있지만 불당이 라고 부를 뿐 법당이라고는 칭하지 않는다.

나, 운명론으로 기울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찰 달력에는 버젓하게 삼재풀이와 상충살, 원진살이 박혀있는 것이다. 중생의 눈높이로 변명을 일삼을 일도 아니요, 방편이라는 미명(美名)을 앞세울 일도 아니다. 마땅히 사찰달력에서는 사라져야 할 삼재풀이, 상충살, 원진살임을 거듭거듭 밝혀둔다.

불교의 대표적 가르침인 중도(中道)에는 번두리와 모서리가 없다. 발길 닿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이르는 곳이 정토(淨土)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 법칙에서는 우연이나 돌연변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열려있다. 사찰도 열려있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도 열려있어야 한다. 관습의 벽을 털어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되돌아와 뚜렷하고 당당하고 여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우선은 조계종총무원에서 발행되는 사찰달력에서라도 이제는 삼재풀이, 상충살, 원진살이 영원히 떠날 수 있길 바랄뿐이다. 하여, 나와나 우리 모두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도 뚜렷하고 당당하게 불제자(佛弟子)임을 밝힐 수 있게.

불교특별강좌

(사)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불교도의 지적교양 증진과 일반인의 폭넓은 불교이해 진작을 위해 불교특별강좌를 실시합니다.

인도철학과 불교

- 기 간 : 2016년 1월 4일(월) ~ 2월 29일(월) [매주 월요일, 8주간]
- 시 간 :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연구원
- 강 사 : 이태승 (본원 원장,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일본불교의 구조적 이해

- 기 간 : 2016년 1월 7일(목) ~ 2월 25일(목) [매주 목요일, 8주간]
- 시 간 :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연구원 강의실
- 강 사 : 원영상 (본원 연구위원, 일본 불교대학 박사)
- 수강료 : 각 강좌 당 100,000원 (교재비 포함)
- 수강접수 : 2015년 12월 10일부터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불교연구원 사무국 TEL 02)762-5624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 59 현대트레비앙 148
TEL : 02)762-5624 FAX : 02)762-5627 우편번호 13133

松根油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분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썩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 010-8558-234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지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9-56 156761 (조명숙)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부림사
- 법 명 : 백연(김병순)
- 주 소 : 서울 강동구 길 1동 351-3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중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5일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